

ASEAN에서의 ICT 협력 논의 동향

홍 승 연*

1. 개요

ASEAN¹⁾은 10개의 매우 이질적인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상이한 발전 단계에 있어 ICT분야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67년 ASEAN 창설이후 1997년 동남아 지역의 10개국인 ASEAN회원국이 됨으로써 ASEAN-10을 달성하고 이후 ASEAN은 하나의 동남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협력 논의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특히 ICT를 ASEAN 통합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ICT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를 활발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후 본문에서는 ASEAN에서의 ICT에 대한 협력이 논의되게 된 배경 및 주요 선언문을 통한 논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지난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도출된 비엔티엔 선언문과 2009 ASEAN ICT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ASEAN에서의 ICT 협력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실 주임연구원, (02)570-4084, syhong@kisdi.re.kr

1)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 국가연합)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동남아 10개국의 지역협력체이다.

2. ASEAN에서의 ICT 협력 논의 추이

(1) ASEAN 통합을 위한 ICT 협력

ASEAN에서 본격적으로 ICT 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를 통해 ‘e-ASEAN 이니셔티브’가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e-ASEAN은 ASEAN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 사회적, 법적, 물리적인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e-스페이스를 통한 통합 및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11월 제4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를 통해 ‘e-ASEAN Framework Agreement’가 채택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1년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차 ASEAN TELMIN(정보통신장관회의)²⁾이 개최되면서 ASEAN에서 ICT 협력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ASEAN의 정보통신 장관회의 활동은 ASEAN 경제통합 논의의 일환으로 ASEAN 경제장관회의(AEM)³⁾와 연계하기로 하고 있다. 그리고 ASEAN TELMIN의 실행기구로 ASEAN TELSOM(정보통신고위급회의)⁴⁾을 두었다.

ASEAN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기존 ASEAN 회원국들⁵⁾과 1990년대 후반에 ASEAN에 가입한 CLMV⁶⁾ 국가들 간의 발전 격차이다. 이러한 역내 발전격차 극복을 위해 2000년 ASEAN 정상회의를 통해 ASEAN 통합 이니셔티브로서 ‘IAI⁷⁾ Work Plan’을 내놓았다. 이는 ASEAN 역내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ASEAN 통합을 가속화시켜, 궁극적으로 ASEAN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

2) Telecommunications Ministers Meeting

3) Economic Ministers Meeting

4) Telecommunications Senior Officials Meeting

5) 기존 ASEAN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ASEAN 선발 6개국인 기존 ASEAN 회원국이다.

6) 1990년대 후반 ASEAN에 가입한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미얀마(Myanmar), 베트남(Vietnam) 등 4개국을 CLMV로 부른다.

7)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이다. 그리고 2003년 제9차 ASEAN 정상회의에서 ‘발리 협정 II’⁸⁾를 채택함으로써 2020년까지 경제통합을 포함하여 ASEAN 통합을 이루기로 약속하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프라 개발협력, 인적자원 개발협력, 정보통신 협력, 지역경제 통합협력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ASEAN 역내 발전격차 해소를 위해 ‘IAI Work Plan 1단계’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34개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으며 총 미화 1억 9,100만 달러가 ASEAN의 선발 6개국에서 지원되었고, 대화상대국⁹⁾ 및 협력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약 미화 2,0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IAI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ASEAN 통합 논의 및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12차 ASEAN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 목표로 추진하던 ASEAN 통합계획을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하고 이를 위해 ‘AEC 청사진’¹⁰⁾을 도출하게 된다. AEC 청사진에서는 2015년까지 ASEAN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ASEAN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IAI Work Plan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IAI 2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ASEAN 경제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ASEAN 경제통합을 통한 ASEAN 단일시장 구축은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자본, 노동력 등이 ASEAN 역내에서 자유롭게 교류되도록 함으로써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는 ICT 부문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정보통신 인력양성과 ASEAN 역내 ICT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까지 ASEAN 각국이 ICT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ICT 인력개발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통신부문의 역내 자유화를 위한 규제 및 정책 개혁, 인도차이나 반도 CLMV 국가들의 통신망 백본 건설 지원을 통한 메콩 델타 지역

8)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I in Bali(2003. 10)

9) ASEAN은 역내 개발격차해소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하여, 인도, EU 등의 국가를 대화상대국 자격으로 ASEAN 협력 논의에 초청하여, 참여 및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10)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정보통신 초고속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SEAN 시장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 사회, 경제, 문화적 ASEAN 통합 추진계획을 진행하는 가운데 ICT 개발 및 발전을 위해 CLMV 지역 대규모 ICT 프로젝트 추진, CLMV 지역 전자정부 구축 및 ICT 인력양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ASEAN의 주요 ICT 관련 선언문

앞서 말한 AEC 청사진을 통해 표명된 2015년까지의 ASEAN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ICT를 통한 통합구축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ASEAN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e-ASEAN Framework Agreement’를 시작으로 이후 수차례 정상회의를 통해 ICT 협력 및 통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매년 ASEAN TELMIN을 통해 ICT 부문의 역내 협력방안 및 노력에 대한 선언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ASEAN 내에서의 ICT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표 1> ASEAN의 주요 ICT 관련 선언문

| 연도 | 회의명 | 장소 | 선언문 제목 |
|-------|--------------------|-------|---|
| 2000년 | 제4차 비공식 ASEAN 정상회의 | 싱가포르 | e-ASEAN 프레임워크 협정 (e-ASEAN Framework Agreement) |
| 2001년 | 제1차 ASEAN TELMIN | 말레이시아 | ASEAN 정보통신 협력을 위한 장관 양해록 (Ministerial Understanding on ASEAN Cooperation i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
| 2005년 | 제5차 ASEAN TELMIN | 베트남 | e-ASEAN 실현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하노이 어젠다 (Hanoi Agenda on Promoting Online Services and Applications to Realize e-ASEAN) |
| 2006년 | 제6차 ASEAN TELMIN | 브루나이 | 역량배양을 통한 ICT 경쟁력 강화 브루나이 행동 계획 (Enhancing ICT Competitiveness: Capacity Building) |

| 연도 | 회의명 | 장소 | 선언문 제목 |
|-------|------------------|-------|---|
| 2007년 | 제7차 ASEAN TELMIN | 캄보디아 | “지방정보화” ASEAN ICT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엠립 선언문 (Siem Reap Declaration on Enhancing Universal Access of ICT Services in ASEAN: “ICT Reaching out to the Rural”) |
| 2008년 | 제8차 ASEAN TELMIN | 인도네시아 | ASEAN 역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초고속망 고도화 및 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발리 선언문 (Bali Declaration in Forging Partnership to Advance High Speed Connection to Bridge Digital Divide in ASEAN) |
| 2009년 | 제9차 ASEAN TELMIN | 라오스 |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ASEAN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 비엔티엔 선언문 (Vientiane Declaration on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Broadband across ASEAN) |

자료: ASEAN

2000년 제4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ASEAN 회원국의 정상들이 채택한 ‘e-ASEAN Framework Agreement’에서는 ASEAN의 ICT 경쟁력 강화와 역내 정보격차 해소, 그리고 나아가 민간 및 공공부문의 e-ASEAN 구축 촉진과 ICT 부문 상품, 교역, 투자 부문의 무역자유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래 6개 부문의 구축 촉진 및 활성화 추진을 표명하고 있다.

〈표 2〉 e-ASEAN Framework Agreement 주요 협력부문

| | 주요 협력 부문 |
|---|---|
| 1 | ASEAN정보인프라(AS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II) 구축 촉진 |
| 2 | 전자상거래 촉진(e-Commerce) |
| 3 | ICT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자유화 촉진 |
| 4 | ICT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촉진 |
| 5 | ICT 역량 배양 및 정보사회 구축 |
| 6 | 전자정부 구축 촉진 |

2001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ASEAN TELMIN에서는 ‘ASEAN 정보통신 협력을 위한 장관 양해록¹¹⁾’을 채택한다. 여기서는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ICT 분야의 협력을 협의한 것으로 ASEAN 정보인프라 구축 및 e-ASEAN 이니셔티브 촉진, ICT 분야에 있어 ASEAN 회원국 간 무역 활성화, ICT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의 조화로운 운용 및 공공-민간의 ICT 부문 협력 활동 추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 TELMIN 회의에서는 하노이 어젠다¹²⁾를 채택했다. 이 어젠다는 ‘e-ASEAN 실현을 위한 온라인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활성화’를 목표로 온라인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정책과 규제환경 조성, ASEAN 역내 상호접속 및 상호 운용성 확대,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경험 공유, 네트워크 보안 강화, ICT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된 제6차 ASEAN TELMIN에서는 ‘역량배양을 통한 ICT 경쟁력 강화 브루나이 행동계획¹³⁾’이 채택되었다. ASEAN은 전자서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를 통해 ASEAN의 ICT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ASEAN 정보인프라 구축에 있어 ASEAN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보다 다양한 ICT 접근을 통한 경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며 ICT 통상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ASEAN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 통합 추진, e-ASEAN Business Council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민간 부문과 청년의 ICT 협력 활동 참여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제7차 ASEAN TELMIN에서는 ‘지방 정보화, ASEAN ICT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엠립 선언문¹⁴⁾’을 채택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ASEAN 회원국내 보편적 서비스 의무 제공(USO)¹⁵⁾을 위한 프로그램을

11) Ministerial Understanding on ASEAN Cooperation i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12) Hanoi Agenda on Promoting Online Services and Applications to Realize e-ASEAN

13) Brunei Action Plan on Enhancing ICT Competitiveness: Capacity Building

14) Siem Reap Declaration on Enhancing Universal Access of ICT Services in ASEAN: ICT Reaching out to the Rural

강화하고 지방 및 소외지역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USO 프로그램의 best practice 개발 및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 도모, USO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수행 등이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8차 ASEAN TELMIN에서는 ‘ASEAN 역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초고속망 고도화 및 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발리 선언문’¹⁶⁾이 채택되었다. 발리 선언문에서는 ASEAN 공동체를 위한 현존하는 협력 활동의 촉진, 지역 이니셔티브 협력 활동 강화 및 ICT 인프라 토대구축을 통해 유비쿼터스 정보사회를 위한 인프라 강화, 지방 소외지역의 광대역 서비스 보급 증대, 2015년까지의 ASEAN 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한 인력개발 협력과 역량 배양, 이러한 ASEAN ICT 통합을 위한 협력활동 참여를 높이고 효율적인 통신기술개발 노력, ASEAN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ASEAN 대화상대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활동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된 ASEAN TELMIN을 통해 도출된 선언문들의 주요 내용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ASEAN 역내 ICT 교역확대를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7년부터는 USO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지방정보화 및 정보격차해소, 그리고 소외지역까지의 ICT 인프라 구축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ASEAN 역내 ICT 교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면서 CLMV 지역과의 격차문제, 그리고 ASEAN 각국 내에서도 도시와 지방간의 정보격차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인프라 기반 구축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역량배양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15)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16) Bali Declaration in Forging Partnership to Advance High Speed Connection to Bridge Digital Divide in ASEAN

(3) 비엔티엔 선언문 주요 내용 및 2009 ASEAN ICT 협력 프로젝트

2009년 10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제9차 ASEAN TELMIN에서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ASEAN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 비엔티엔 선언문’¹⁷⁾이 채택되었다.

비엔티엔 선언문에서는 범 ASEAN 브로드밴드 이니셔티브 촉진을 위해 2015년까지 ASEAN공동체 내 브로드밴드 접속성 확대를 위해 정책 및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백본의 연결을 완료하여 이를 기반으로 역내 ICT 교류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 및 어플리케이션 발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다. 특히 현지화된 다국어 콘텐츠를 통해 브로드밴드 활용 수요를 확대하며, 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ASEAN 내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브로드밴드 플랫폼 구축을 통해 ASEAN 역내 e-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춘 탄력적 인프라 구축을 실행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 협력 등에 대한 협력도 다루고 있다.

비엔티엔 선언문은 이전까지의 소외지역 정보화 및 인프라 기반 구축 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와 달리 지방 소외지역까지 확대 구축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논의가 이전보다 추가,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 추이는 ASEAN TELMIN에서 도출된 ICT 협력 선언문의 실현을 위해 도출된 2009년 ASEAN의 ICT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9년 ASEAN의 주요 ICT 협력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Vientiane Declaration on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Broadband across ASEAN

<표 3> 2009 ASEAN ICT 협력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 주재국 | 주요내용 |
|---|-------|---|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연구 및 시범운영 | 말레이시아 | 멀티미디어 활용 원격교육 추진을 위한 저렴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을 연구 및 원격교육 시범운영 추진 |
| ASEAN 사이버 어린이 캠프 | 말레이시아 | ASEAN 학생 및 교사 대상 PC 및 인터넷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캠프 추진 |
| 그린ICT 활동을 위한 ASEAN 전략 | 인도네시아 | CO ₂ 감소를 위한 ICT 활용 증가를 위한 전략 연구 및 관련 워크숍 개최, 관련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 ASEAN 대화상대국들과 SEAN CERT 공동 훈련 | 싱가포르 | ASEAN 및 한중일 등 대화상대국들 간의 CERT 공동훈련 실시 |
| ASEAN 정보격차해소 협력 | 베트남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ASEAN 협력 |
| ASEAN내 전자정부 상호운용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아키텍처 체제 구축 | 태국 | ASEAN 전자정부 기술아키텍처 체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ASEAN내 상호운용성 제고 방안 마련 |
| ASEAN 지방콘텐츠 개발 워크숍 | 인도네시아 | ASEAN의 지방콘텐츠 개발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을 구성하여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ASEAN 지방 콘텐츠 발전방안 마련 |
| ICT phase2를 통한 ASEAN 재택노동자 역량강화 | 태국 | 네트워크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재택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재택노동이 가능토록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 더 나은 건강과 행복을 위한 e-health 센터 구축 | 라오스 | 벽촌지역에서의 전자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
| 농촌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한 WiMax기술활용(인도네시아 e-farmer 사례연구) | 인도네시아 | 농촌지역 e-farmer H/W 및 S/W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농촌지역 생산성 제고방안을 인도네시아 사례연구를 통해 추진 |
| SIP기반 VoIP 보안 모델 구축 | 인도네시아 | SIP 기반 VoIP 보안모델 구축을 위해 각국 현황 평가 및 모델 도출 및 시범 테스트베드 운영 추진 |
|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의 IPv6 와 DNSSEC 실행을 위한 ASEAN 협력 워크숍 | 말레이시아 |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IPv6 전환에 있어 ASEAN 차원에서의 보안구축 연구를 위한 워크숍 개최 |

2009년 ASEAN ICT 협력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ICT 인프라 구축 및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 함께 ICT 활용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등 소외지역에서의 ICT 활용을 높이기 위한 협력프로젝트들이 많아졌으며, 또한 상호운용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과 정보보호 협력 등도 눈에 띈다.

3. 결 어

지금까지 ASEAN에서의 ICT 협력논의를 위해 ASEAN TELMIN이란 체제가 구축되었고, ASEAN TELMIN에서 매년 도출되고 있는 선언문을 통해 ASEAN에서의 ICT 부문 논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ASEAN의 ICT 협력논의는 2000년대 들어 ASEAN이 지역통합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ASEAN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정보통신에 대한 공통된 인식하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ICT 협력은 매년 ASEAN TELMIN 및 TELSOM 협력활동을 통해 ASEAN ICT 부문 통합을 위한 행동계획 및 가이드라인, 추진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ASEAN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ICT 인프라 통합과 지방정보화를 통한 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가 그 주요 관심사로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가 도출되면서 2015년까지의 ASEAN 공동체 추진에 있어 ICT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SEAN 통합 논의에 있어 한국정부도 ICT를 통한 對ASEAN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 6월 제주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담에서도 한-ASEAN 간의 ICT 분야 협력의 긍정적 결실을 높이 평가하며, 한·ASEAN 간 ICT 지식협력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와 공동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16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9차 ASEAN TELMIN 기간 중 함께 열린 ASEAN TELMIN+Korea 회의¹⁸⁾를 통해서도 한국 정부는 ASEAN에서 도출된 비엔티엔 선언문을 지지하면서, ASEAN 역내 발전격차, 특히 정보격차

18) 한-ASEAN 정보통신장관회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ICT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의 ICT 발전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ASEAN 국가들과의 개발경험 공유와 ICT 부문의 협력확대를 통해 한국은 ASEAN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ASEAN 공동체 구축에 일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ASEAN과의 ICT 협력을 바탕으로 ASEAN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확대에 있어 한국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강인수 외(2008), ‘한-ASEAN IT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 KISDI, 2008. 12
- ASEAN(2008), Bali Declaration in Forging Partnership to Advance High Speed Connection to Bridge Digital Divide in ASEAN
- _____ (2006), Brunei Action Plan “Enhancing ICT Competitiveness: Capacity Building”
- _____ (2000), e-ASEAN Framework Agreement
- _____ (2005), Hanoi Agenda on Promoting Online Services and Applications to Realize e-ASEAN
- _____ (2001), Ministerial Understanding on ASEAN Cooperation i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 _____ (2007), Siem Reap Declaration on Enhancing Universal Access of ICT Services in ASEAN: “ICT Reaching out to the Rural”
- _____ (2009), Vientiane Declaration on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Broadband across ASEAN

www.aseansec.org